

구정평가위원회 정기회의 개최결과

| ★주무관 | 참여구정팀장 | 민관협치담당관 |
|------|--------|---------|
| | | |

구정평가위원회 2017년 1차 정기회의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7. 1. 17.(화) 14:30 ~ 16:00
- 장 소 : 주민참여위원회실(본관 7층)
- 참석인원 : 분과위원 10명 중 6명 참석
(※ 불참 : 박성원, 황숙령, 장용섭, 손기만 ※ 배석 : 참여구정팀장)
- 회의안건 : 2016 은평누리축제 모니터링 내용 공유 등

□ 회의결과

- 2016년 은평누리축제 세부계획서 검토
 - 2015년 세부계획서와 비교해서 내용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아이템이 없음
 - 계획서를 보면 홍보예산이 책정되지 않음. 지난해 누리축제의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함
 - 진관사 국행수륙대제, 국태민안 금성당 금성대군 충의제 등의 행사는 무형 유산으로 우리구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
- 2016년 은평누리축제 현장 모니터링 내용 공유
〈파발제〉

- 파발행렬의 시간안배가 서로 맞지 않아 행렬의 혼선 초래
- 파발행렬시 도로를 일부 점용하여 행렬이 진행되다 보니 운행하는 차량과의 동선이 겹쳐 원활한 진행이 어려움
-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이나 주민참여가 소극적이고 일회성에 그쳐 시민협조의 미흡함이 관찰됨
- 축제안전을 위한 경찰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, 통제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활동도 미약함
- 행사운영을 위해 각동에 예산(800천원/동)이 지원되었으나 낭비적으로 집행되는 경향이 있었음
- 어가행렬 퍼포먼스 참가자들의 성의없는 행진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살리지 못함

〈폐막제〉

- 주민화합의 기초를 살리기 위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
- 숲속극장에서 문화예술회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외부의 목재 계단 및 데크를 지나가야 하는데 목재 노후화로 보행이 위험하고 불편함
- 축제광장에 폐막제 무대와 생활체육한마당 무대가 별도로 설치되어 예산낭비라 생각됨

〈진관사 국행수륙대제〉

- 주요무형문화재 재현행사로 역사적 의미가 있음
- 참관하는 일반주민을 위해 행사의 역사적 의미와 진행과정의 설명이 필요함

* 사찰 행사이다 보니 일반주민은 진행과정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참관만 하는 입장임

- 차기회의시 2016 은평누리축제 운영관련 관계공무원 설명 요청
- 차기 회의일정 : 2017. 2. 16.(목) 14:00

□ 회의사진



끝.